



문 좋은 송아지 구입요령

답 낙농업에서의 우량송아지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조성된 초지에서 현대식 시설을 갖추며 높은 기술을 가지고 낙농업을 경영한다 해도 젖소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성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송아지를 고르려면 상당한 경험과 주의력있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개체에 대한 혈통등록을 통해서 우량인자를 선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통등록에 의한 우량우 선발과 젖소 개량사업은 선진외국에서는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가축 등록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외모에 의한 우량송아지 선발요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유떼기 송아지와 분유떼기 송아지가 주로 거래되기 때문에 편의상 이를 구분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초유떼기 어린송아지 선택

먼저 대상송아지가 갓낳아서 초유를 먹었는지는 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초유를 분만후 30분 이내(늦어도 2시간이내)에 먹은 송아지라야 설사등 질병에 강하고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체중이 1주령에 45~50kg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건강하고 원기가 있으며 눈동자가 맑고 피모가 깨끗하며 윤택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배꼽부위에 염증이 없어야 하고 설사를 하거나 했던 흔적이 없는 것을 골라야 하겠습니까.

끝으로 몸풀이 잘 생겼고 목이 짧아보이면서 주름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 분유떼기 송아지 선택

분유떼기 송아지는 생후 1개월령 정도의 송아지이며 대개 젖소 송아지는 39~50일간 우유를 먹이거나 대용유를 먹여서 1~2개월 사이에 젖을 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송아지 구입이 용이할 것입니다. 분유떼기 송아지 구입시는 다음 사항을 유념해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젖소의 몸무게가 1개월을 기준해서 60kg이상은

되어야 하고 머리는 체구에 비하여 약간 작게 보이고 비경이 넓으면서 목이 짧은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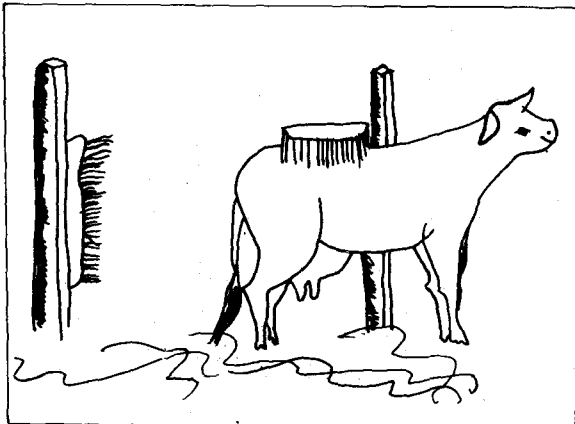
네다리가 길게 보이고 체폭이 넓게 보이며 몸통의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피부가 얇으면서 탄력이 있어야 하며 피모는 역시 거칠지 않고 윤택이 있어야 합니다. 배가 늘어지지 않고 만성적인 설사를 하지 않은 송아지라야 하며 식욕이 왕성해서 어린 송아지 사료를 1일 1kg 정도는 먹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문 비육우의 피부손질방법

답 비육을 할 때 우사내에 먼지가 많고 환기가 잘 안되는 경우에 소 몸에 먼지가 앉고 때가 끼게 되므로 이런 때는 솔로 피부를 손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마리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피부손질을 해주는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와같은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피부손질을 하지 않는 농가도 있으며 풀어서 사육하는 경우 우사나 운동장에 <그림1>과 같이 기둥에 솔을 설치하여 소가 가려울 때 비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는 솔을 등높이에서 아래쪽으로 설치하고 다른 하나는 소 옆구리 높이에 설치하면 소가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피부손질용 솔 설치방법



“

낙농업에서의 우량송아지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조성된 초지에서 현대식 시설을 갖추며 높은 기술을 가지고 낙농업을 경영한다 해도 젖소사체에 결함이 있다면 성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송아지를 고르려면 상당한 경험과 주의력있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개체에 대한 혈통등록을 통해서 우량인자를 선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 젖소 후보축 기르는 요령

답 후보축관리가 우선인가 착유우관리가 우선인가? 하는 질문을 낙농인들에게 드리면 혹간은 후보축관리가 우선이지요 하는 답을 듣는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장을 방문하여 보면 대답과는 정반대로 대개의 농가가 착유우 우선방식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풀이 있으면 우선 젖내는 소에게부터 주고 후보축이나 건유우에게는 남겨지나 주는 식으로...

지난 10여년간의 전국 평균 착유우 두당 연간 산유량이 제자리에(4,700kg선) 머물러 있는 것으로 우리 낙농가들이 후보축을 얼마나 소홀히 다루었는가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고방식에 바탕을 둔 사양으로는 어미보다 좋은 후대가 육성될 수도 없으며 낙농이 발전할 수도 없다고 감히 단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후대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후보축관리가 착유우관리에 우선한다는 마음가짐부터 정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송아지라도 육성과정이 잘못되면 물려받은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다음 모유가 좋은가 분유가 좋은가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하여야겠습니다. 우유는 송아지에게는 물론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중 가장 완전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인간이 아무리 젓먹이 송아지 분유를 잘 조제하여도 모유만을 못하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낙농은 지난 20여년간 우유의 공급(생산)이 수요를 못 따르는 시기였으므로(일시적인 예외도 있었으나) 외국에서 비교적 값싼 분유(송아지용)를 도입하여 송아지를 길렀고 이것이 송아지 육성 기본방식으로 정착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시험보고로는 송아지를 조제분유로 육성하는 것이 육성기간(포유기간)의 표면적인 비용절감은 되지만 절대적인 이익은 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고 조제분유 이용방법은 분명 하나의 편법입니다. 하루빨리 송아지는 모유로 기르는 것이 기본방법으로 정착되고 이 방법으로 바뀌어야겠습니다. 더구나 우유가 체화되는 시기 같은 때에는 체화방지에 같이 참여하는 뜻에서라도 송아지는 꼭 모유로 길러야겠습니다.

다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송아지는 최양질의 건초를 충분히 먹여 길러야합니다. 좋은 건초를 충분히 먹지 못한 송아지는 어버이로부터 물려받은 자질을 십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양이 뒷받침되지 않는한은 종축개량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사료를 많이 먹는 소가 젓도 많이 납니다. 커서 많이 먹기 위하여는 어려서 많이 먹는 훈련이 되어야하고 1위가 잘 발달되어야 합니다. 저질 조사료의 급여시는 영양보충을 위한 농후사료 급여가 불가피하고 조사료의 채식량이 적어지면 1위의 발달기회를 상실하고 육성과정에 배합사료를 많이 먹는 소는 절대 우수한 착유우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좋은 송아지용 건초는 알팔파건초입니다. 알팔파건초는 단백질이 17~22%나 되며 이 영양수준은 송아지에게 최적의 수준입니다.

우수한 후대를 육성키 위하여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알팔파를 길러야 하며 6개월령까지를 기준하여 1두당 50~100평이면 족합니다. 알팔파의 재배가

“

최근의 시험보고로는 송아지를 조제분유로 육성하는 것이 육성기간(포유기간)의 표면적인 비용절감은 되지만 절대적인 이익은 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고 조제분유 이용방법은 분명 하나의 편법 하루빨리 송아지는 모유로 기르는 것이 기본방법으로 정착되고 이 방법으로 바뀌어야겠습니다. 더구나 우유가 체화되는 시기 같은 때에는 체화방지에 같이 참여하는 뜻에서라도 송아지는 꼭 모유로 길러야

”

어렵다고 하더라도 참깨를 재배하는 것과 같은 정성만 기울이면 누구라도 잘 재배할 수 있습니다.

문 소버짐의 치료와 예방

답 이 병은 곰팡이(眞菌)의 감염에 의하여 털이 원형으로 빠지는게 특징이며 백선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전염성이 강해서 밀폐된 축사내에서 집단으로 사육되는 비육우에 많이 발병되고 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감염되기도 합니다.

○ 원인: 감염된 소에 직접 또는 간접접촉에 의하여 전파되며 감염우로부터 축사내의 벽, 목책, 기둥, 사료통, 축사바닥 등에 떨어진 곰팡이포자등이 다른 소에 접촉되거나 병이든 소가 건강한 소에 직접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특히 피부의 상처가 있을 때에는 곰팡이 침입이 용이해서 감염의 유인(誘因)이 되며 소의 안면이나 경부(頸部)는 타부위 보다도 발병되기 쉬우며 감염은 전신에 까지도 퍼지고 있습니다.

○ 증상: 이 병은 겨울철과 이른 봄철에 발병되고 잠복기는 1~4주로서 환부는 처음에는 작으나 점차 둥근모양으로 커져서 털이 빠지고 회백 또는 회황색의 비늘이 생깁니다. 가려움증은 초기와 치유기에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 예방

- 감염된 환축의 격리 수용하고 다른 소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며 오염된 축사는 살균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겨울철에 소가 춥다고 등에 「덕석」을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 방목장 또는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사육시키는 것이 이 병의 전염을 촉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 치료: 환부의 비늘을 털어내고 강옥도정기나 살질산알콜용액 등을 3~5일간 계속 바르면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문 젖소 방사식 사육방법의 장단점

답 개체별 계류방식 사육과 방사식 사육은 건물모양, 환경관리 방식, 수용방식, 작업체계등 모든 것이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대조적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곧 장단점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며 이용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건물의 외형적인 차이: 개체별 계류방식(이하 전자라 표기함)은 건물을 폐쇄식(네벽이 다 있는 건물)으로 설치하여야 하며(우리나라의 기후조건에서) 방사식(이하 후자라 표기함)은 겨울바람과 햇빛 그리고 찬비만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도록 하면 되므로 그늘막 같은 간단한 시설로도 휴식과 운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가 전자에 비하여 건축비가 매우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개방식 우사를 이용하려면 우리나라의 기후조건하에서 환경응용 원리를 시설에 바르게 적용하여야 됩니다.

수용방식: 전자는 소의 행동을 극히 제한하나 후자는 행동제한을 최소한(착유시만 제한)하므로 동

물이 행동자유를 늘 갈구하는 본능으로 미루어 볼 때 후자가 전자에 비하여 절대 유리합니다.

단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개체별 관찰과 관리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점은 시설과 관리 수단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 방식의 차이점: 전자는 소의 행동을 제한(매어 둠)하므로 우사내의 기온, 습도, 공기, 성분 유해가스 등을 소에게 적합하도록 늘 사람이 관리(인위적인 조절)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완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후자는 소에게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부여하여 주기 때문에 스스로 나쁜 곳을 피하여 좋은 곳에 머무르므로(냄새가 심하면 적은 장소로 피하여 가는 행동 같은 것)주어진 여건내에서 환경이 가장 좋은 곳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결과가 되는 잇점이 있습니다.

방사식에서 추위를 매우 걱정하는 사례가 많으나 홀스타인종 젖소는 추위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높아 영하12℃부터 영상24℃간에서는 정상산유량이 유지되는 품종이므로 겨울철에 자고 쉬는 곳에 깔짚을 충분히 깔아주고, 볕풍은 막아주며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면 추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 소는 잔뜩 매어두고 우사내에는 습도와 가스가 높아지고 하는데 소들이 피할 수가 없으니 나쁜공기로 인하여 소의 호흡기가 상하여 호흡기계 질병의 원인이 되고 병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작업체계: 전자는 소를 한 마리씩 매어두므로 작업단위도 한마리가 되어 작업이 세분되고 복잡하여 작업량도 많은 결과가 되나 방사식은 작업단위도 무리단위(群單位)가 되어 작업이 간편해지고 양도 적어지는(능률상) 잇점이 있습니다. 단, 방사식의 작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이 방식에 맞는 작업체계를 시설 설치때 꼭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방식(방사식)을 이용하려면 젖소의 환경적응 특성, 우리나라의 기후, 사육시설내에 소를 수용하므로써 오는 환경의 변화를 잘 익히고 시설 설치와 관리에 임하여야 합니다.